

요약문

• 등록일자 : 2020-04-10 • 업데이트 : 2024-03-13 • 조회 : 4466 • 정보신청 : 100

개요

[폐흡충(Paragonimus westermani) 감염에 의한 폐 기생충 질환]

개요-신고 대상 및 방법

- 신고범위 : 환자
 - 신고를 위한 진단기준
 - 환자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에 따라 감염병병원체 감염이 확인된 사람
 - 진단을 위한 검사기준 : 검체(대변, 가려)에서 종란 확인
 - 신고시기 : 7일 이내 신고
 - 신고 방법 : 표본감시기관은 기생충감염병 신고서를 작성하여 질병관리본부로 팩스 또는 웹[바로가기]으로 신고
- ★ 표본감시 대상 의료기관 여부 확인 : 관할 지역 보건소에 문의

개요-원인 및 감염경로



역학 및 통계

폐흡충은 극동, 동남아, 아프리카, 남미 등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인체 감염사례는 주로 일본, 한국, 대만, 중국 등 극동지역에서 보고되었으며, 드물게 남미, 북미 등지에서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국내 감염 현황은 1926년에 객담(가래)검사에서 7.9%의 종란(蟲卵) 양성률을 보였으나, 최근에는 감염자가 드물게 발견됩니다.

전파경로는 폐흡충 피낭유충에 감염된 민물참게, 참가재를 생식하거나 민물참게장, 가재죽 등을 통하여 경구로 감염됩니다.

폐흡충증은 2020년 법정감염병(제4급감염병)으로 지정되어 표본감시하고 있습니다.

< 표, 폐흡충증의 국내현황 >

연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신고 건수 (표본감시제계)	4건	4건	0건	3건	1건	1건	2건	2건	1건

※ 폐흡충증 : 2011년(제5급 감염병 /표본감시) → 2020년(제4급 감염병/표본감시)※ 출처 :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www.kdmp.go.kr/nc/bo/ncp/ass/parasitus/statistic/asn.do>

증상

폐흡충증 증상은 감염 후 잠복기를 거쳐, 폐흡충증 증상을 보일 수 있습니다.

잠복기는 감염 후 6-8주 정도입니다.

폐흡충증의 임상유형은 크게 2가지로, 폐에 병소를 형성하거나, 폐 외 장기에 침범하여 병소를 형성하는 것으로 구분합니다.

1) 폐 폐흡충증

폐흡충이 감염자의 폐에 병소를 형성하는 경우를 폐 폐흡충증이라 합니다.

폐 폐흡충증은 심한 기침, 피쉬인 쇠녹물색의 가래, 흉통, 호흡곤란이 있으며, 합병증으로 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늑막염, 기흉, 농흉 등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2) 이소(異所) 폐흡충증

폐흡충 감염자의 약 45%는 폐흡충이 폐 이외의 장기에 침범하여 병소를 형성하는데 이를 이소(異所) 폐흡충증이라 합니다.

이소(異所) 폐흡충증시에는 뇌, 척수, 안구, 난소, 신장, 복벽, 장벽, 간, 흉막 등에 병소를 형성하며, 침범된 장기에 따라 통증, 경직, 농양 등이 동반됩니다. 뇌는 이소폐흡충증이 가장 흔히 발생하는 장기로 발작, 마비, 뇌막염, 뇌출혈 등의 증상을 초래합니다. 복강의 장기를 침범 시에는 복부 통증, 간농양, 경직, 설사, 압통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단 및 검사

폐흡충증의 진단은

첫째, 객담이나 대변에서 특징적인 충란을 발견하면 됩니다. 객담검사는 5% NaOH로 객담을 처리하여 점도를 없앤 후 원심침전법으로 충란(蟲卵) 관찰을 합니다. 객담을 삼키는 환자, 어린이, 노인은 대변검사로 진단합니다. 객담검사와 대변검사는 민감도가 낮아 감염자에서도 진단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효소면역측정법(ELISA)과 같은 면역혈청학적검사에 의한 진단이 민감도와 특이도가 우수하여 환자의 진단에 주로 이용됩니다.

셋째, 흉부 X-선검사, MRI, CT 등의 영상의학적 검사법이 진단에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예방 및 예방접종

폐흡충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민물에 사는 참게, 참가재 등 제2 중간숙주를 날 것으로 먹거나 덜 익은 상태로 먹지 말아야 합니다.

치료-약물 치료

폐흡충증의 치료를 위해 Praziquantel 25 mg/kg를 1일 3회, 2-3일간 투여하게 됩니다. 약제 부작용으로 소화장애, 현기증, 두통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대상별 맞춤 정보

환자 격리는 필요 없으며, 환자와 접촉한 사람도 특별한 격리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문헌

- 질병관리본부 (2020). 감염병포털. <http://www.kdca.go.kr/npt/biz/npp/iss/parasitosisStatisticsMain.do>



공공누리
공공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이용안내](#) [저작권정책 및 웹접근성](#)

[28159]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내 질병관리청
문의사항: 02-2030-6602 (평일 9:00~17:00, 12:00~13:00 제외) / 관리자 이메일 : nhis@korea.kr
COPYRIGHT © 2024 질병관리청. ALL RIGHT RESERVED

해외기관

^

유관기관

^

정부기관

^

※ 본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일 뿐 게시물에 대한 법적책임은 없음을 밝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